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한경우

Far too Close

Far too Close

‘거리’는 물리적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 역시 형용사인 멀고 가까움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출생 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시작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친구, 동료, 연인, 사제간 등 여러 관계를 맺는다. 그만큼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을 몇 개의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특정 사건이나 계기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기도 하면서 때마다 각기 다른 거리가 형성된다.

‘Far too Close’는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뜻이다. 제목처럼 작가는 무수한 관계들 중에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하는 관계에 주목했다. 하지만 ‘Far’와 ‘Close’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친밀한 관계가 가지는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이 과연 심리적 거리와도 상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014년 개관 이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자동차와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년간 국내외 작가들을 대중에게 소개해왔다.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대화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자 했다. 누구라도 커피 한 잔을 위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개방성과 편의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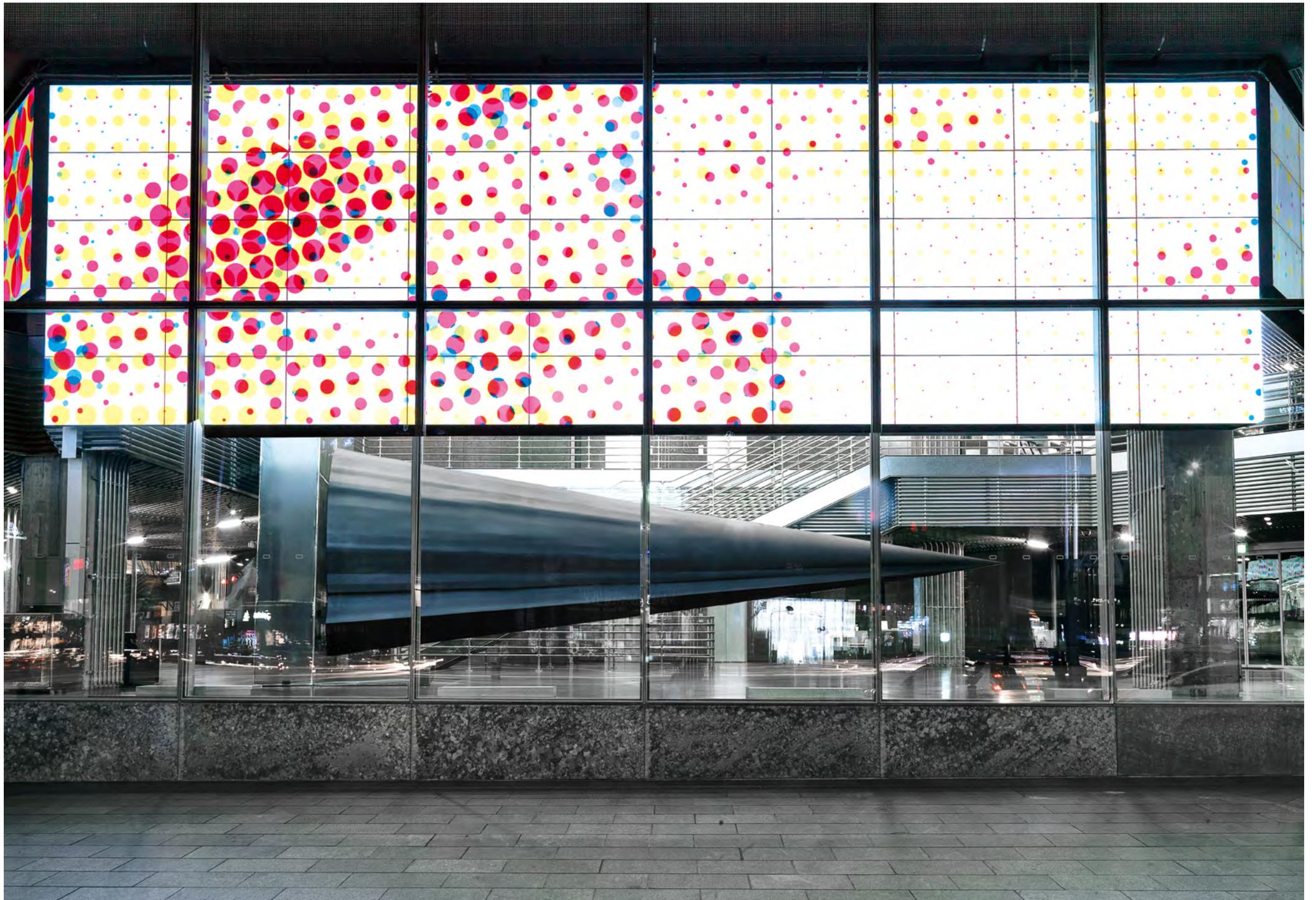
따라서 장소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방문 횟수와 목적 역시 일반 갤러리와는 사뭇 다르다. 주말마다 어린 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아버지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강연에 참여하기 위해 조심스레 첫 발을 들여놓는 학생들도 있다. 비록 주요 목적이 작품감상이 아닐지라도, 방문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도서관과 카페가 연결된 1층 공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들어서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의 지형도가 그려진다. 자신과는 다른 목적 혹은 시선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타인을 보게 됨으로써 다양한 거리의 관계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번 전시는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관계를 모두 아우르며 관객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거대한 원뿔 형태의 설치 조형물 “Far too Close”와 건물 외벽을 따라 위치한 미디어월의 영상 “Wrestle Inside”으로 구성되었다.

두 작품은 각기 다른 매체로 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적 거리에 대해 논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의 거리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물질적 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가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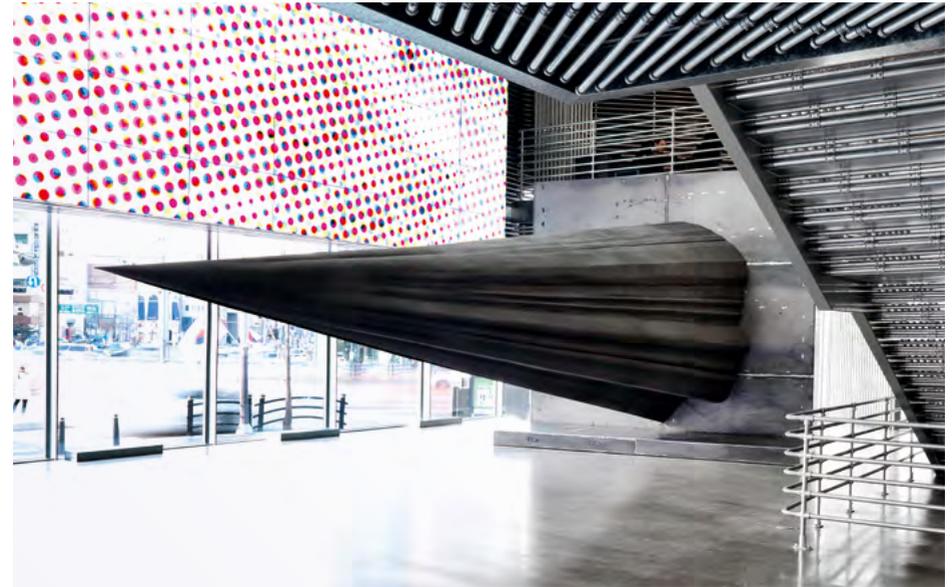
Far too Clos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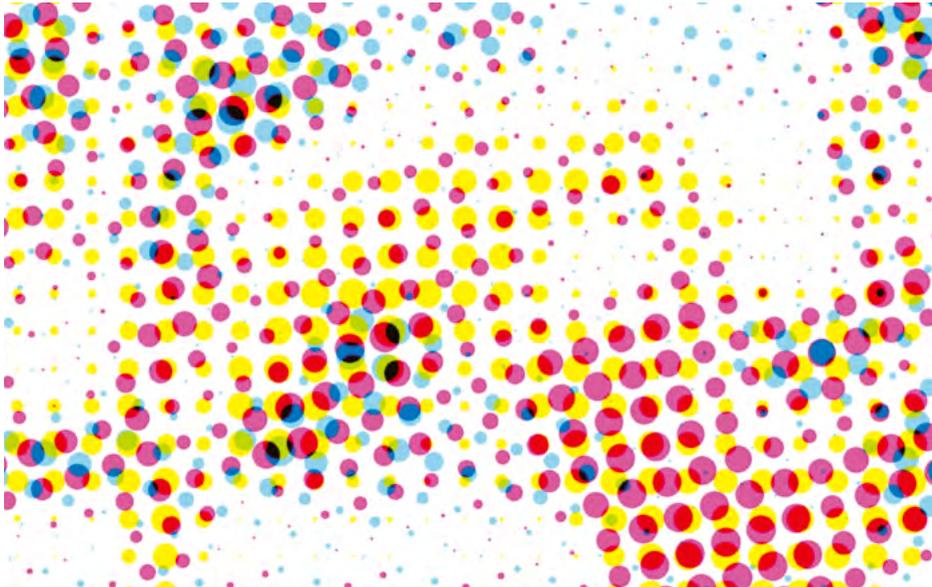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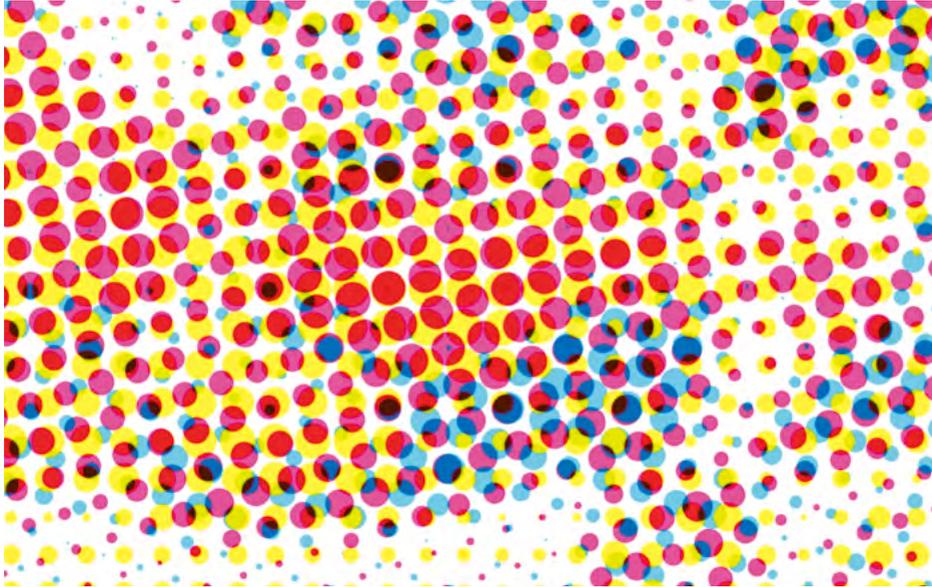
전시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기다란 철제구조물은 원뿔형상이 가로로 누운 모습으로, 베이스가 한쪽 벽면에 고정되어 있고 뾰족한 끝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십사리 형태와 목적을 알 수 없는 낯선 느낌은 호기심을 유발하여 어느덧 공간 내부로 발걸음을 이끌지만 물음표는 점점 커진다. 원뿔의 꼭짓점을 시작으로 작품의 축면을 따라 걸어갈수록, 형태의 뿌리와는 가까워지지만, 흑빛의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표면만이 도드라지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난다. 즉 온전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약 10m라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대상과 멀어지며 비로소 일그러진 원뿔형태가 사람의 옆모습을 형상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가까이 사이에서 더욱 갈등을 겪는 아이러니한 인간관계를 떠올릴 수 있다.

가깝게 얽혀있는 관계들이라면 으레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혈연관계로 얽힌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가장 닮아있으면서도 그렇기에 다른 모습을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함께 생활하며 여러 의견차이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런 대립과 마찰의 아이러니를 결혼과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게 된다. 물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지만 때로는

제도적, 상황적 문제로 인하여 대립과 마찰에 쉽사리 노출되기도 한다. 선택에 의해서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결론적으로 함께하는 생활의 지속시간과 심리적 거리가 항상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Far too Close”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모하는 섬세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단지 얼굴 형상에 다가가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상이 아닌 미지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서로의 존재가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각자의 말과 행동이 점점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금 거리를 두고,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옮겨가며 이상적인 각도를 찾았을 때, 갈등관계는 개선되고 서로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 거리가 필연적이기도 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Wrestle Inside (2017)

건물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미디어월은 거리에 따른 시각적 인지 상태를 이야기하기에 효과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영상은 하프톤(halftone)* 방식으로 제작되어 화면과 가까워질수록 각기 다른 크기의 점들의 움직임만 보일 뿐,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건물 내부의 미디어월은 전체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출되는 이미지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도산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외부 미디어월은 행인들과 상당히 멀리까지 가시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내부월에 비해 감춰진 형상이 훨씬 쉽게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형형색색의 점들이 움직이며 트리를 장식하는 전구처럼 깜빡이며 빛난다. 문득 이 점들의 움직임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까 하고 관찰해보지만 이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된다. 가까이에서는 그저 부드럽게 움직이는 색의 향연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레슬링 경기 장면이다.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실제 몸을 부딪히며 싸우는 레슬링에 비유되었다. "Wrestle Inside"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우선 영상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부 미디어월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비유한다면 외부 미디어월은 타자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양쪽 모두 같은 영상이 상영되지만, 타자의 문제는 또렷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나의 문제는 찾기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갈등의 관계와 연결 지어 보면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간관계도 실상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작에는 소리가 없다. 설치조형물을 통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무형의 거리를 보았다면, 영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인간관계, 나아가 사회적 현상과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의 거리를 논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일반적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운드를 배제시킴으로써 감상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다.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사운드 효과를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작가가 결정하여 제시한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관람객이 객관적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시각적 메시지를 판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성은 온전히 나만의 경험으로, 나아가 모두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작품활동

한 경우는 선행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 대상에 대한 반전과 허를 찌르는 착시를 주개념으로 하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도 특정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람객의 고정관념을 깨는 맥락을 이어간다. 감상의 방식에서 거리(Distance)는 필연적 요소이며 '가까이서 보아야 잘 보인다'는 우리의 통상적 관념을 뒤바꾼다. 유사한 방식의 작품으로는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한 "I MIND"(2014)를 예로 들 수 있다. 관람객은 어두운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흑과 백의 점증적 채색으로 구성된 평면회화를 마주하게 된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평면으로 느껴졌던 이미지가 가까이 갈수록 이내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입체구조물임을 알게 되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것은 I MIND라고 쓰인 입체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둥의 측면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원, 근, 상, 하의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다른 경험이 일어나고 이로써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단편적이었는지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번 전시가 기존과 차별화 되는 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바탕 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작가는 보편적인 주제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객관적 3자의 입장에서 관람객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가 자신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또한 주어진 프레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작품을 보고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감상법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것과 다르다. "Star Pattern Shirt" (2011), "Intolerable Cube" (2014)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특정 화면이나 미디어 장치를 통해 대상의 왜곡된 형태로 인한 반전과 이를 통한 흥미요소가 다소 쉽게 주어졌다. "I MIND"에서도 관람객은 작가의 계획에 따라 프레임 속 이미지를 먼저 마주하고 이후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가며 시각적 반전을 찾게 된다. 반면 이번 작품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왜곡의 주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리의 아이러니에 대해 스스로 감상포인트를 찾아가고 시선을 달리하게 된다.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감상할지 보다 주체적으로 찾아나서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다. 작품의 구성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상하기 위한 관객의 움직임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노력과 같다.



I MIND(3rd floor view), 2014, Song Eun Art Space, Seoul, Korea,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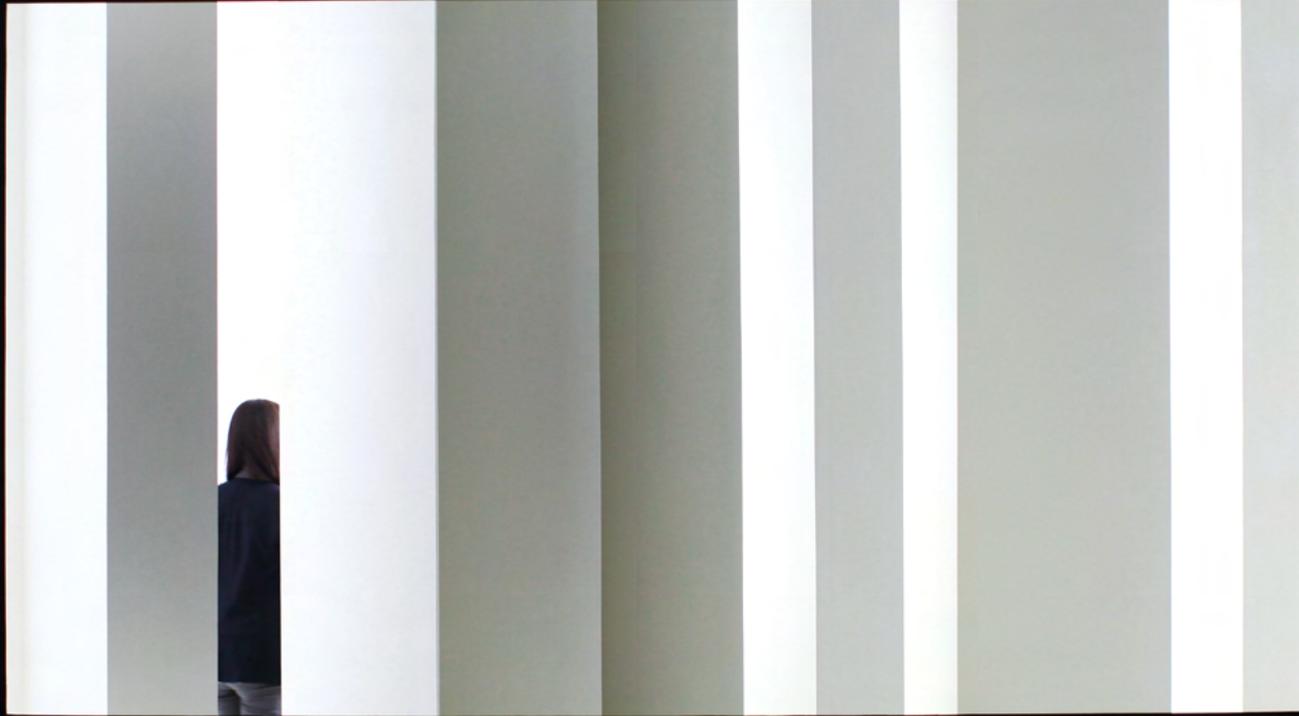
Beginning Without End, Salon de H, Seoul, Korea



Projected Specimen - Rabbit, 2014, Song Eun Art Space, Seoul, Korea



Three Cubes, 2015, SongDo Central Park, Incheon, Korea



한경우 약력

한경우는 1979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후 미국 시카고예술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석사를 취득하였다. 2010년 스코히건 미술학교 회화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후 2011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Red Cabinet”, 2012년과 15년 살롱드에이치, 2014년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I MIND” 등의 개인전을 진행하며 사진,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은 작업을 진행해왔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11회 송은 미술대상전”, 2012년 리움 미술관의 “아트 스펙트럼 2012”, 2013년 북서울 미술관 개관전 “장면의 재구성 #2”, 그리고 2014년 부산비엔날레,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주년 특별전, 2016년 상하이 21세기 민생미술관 “The Shadow Never Lies” 등이 있다.

특히 2015년 송도 센트럴 파크에서 선보인 “송도 아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폭이 42미터에 이르는 대형 설치작업을 진행했으며, 뉴욕, 시카고, 런던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와 전시를 진행하였다. 그의 작품은 시각에 의해서 촉발되나 관람객이 사전에 습득한 기억, 관계, 인식, 상식과 맞물려 경험이 극대화된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 시작한 감상이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기존의 사고체계를 뒤돌아 보게 만들고, 반복된 생각으로 생기는 이러한 자극은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